

KEP, POM 생산 8만톤으로 확대

아시아 수요증가 대비 7000톤 증설 ... MGC는 세계 2위 확고히

Mitsubishi Gas Chemical이 POM(Polyacetal)의 글로벌 생산체제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타이 거점에 이어 한국 합작기업에서도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7000톤을 증설함으로써 2005년에는 총 생산능력을 8만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의 공급체제를 구축할 방침 아래 일본, 타이, 한국의 기존 거점에 현재 건설중인 중국 합작거점을 포함시킨 4극체제를 구축해 세계 2위의 자리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Mitsubishi Gas Chemical의 POM 생산거점은 Yokkaichi(생산능력 2만톤), Thai Polyacetal(4만5000톤)를 비롯해 Korea Engineering Plastics(7만3000톤) 등이며 중국의 江蘇省 南通市에 Polyplastics, KEP, Ticona와 합작으로 6만톤 플랜트를 건설해 2005년 1/4분기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프린터, FAX, 전화기 등 가전·OA기기나 자동차부품의 각종 기어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POM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연평균 6% 신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연평균 8%로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Mitsubishi Gas Chemical은 Mitsubishi Engineering Plastics을 통해 중국에 2만톤 정도를 판매하고 있으며 Celanese 50%, Mitsubishi Gas Chemical 40%, Mitsubishi Corporation 10% 합작인 KEP도 3만톤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신 거점을 가동한 후에도 수요증가로 타이트한 수급밸런스가 지속돼 Mitsubishi Gas Chemical은 코스트경쟁력이 있는 TPAC에서 2004년 가을 정기보수 때 생산능력을 5만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 KEP도 증설을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수요증가에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생산능력 증설에 따라 일본, 타이, 한국, 중국을 합친 Mitsubishi Gas Chemical의 POM 생산능력은 약 16만톤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23%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확대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4/09/02>